농어가목돈마련저축 '존폐 위기'

최근 5년새 가입계좌수 18% 급감… 이원택 의원 "현실성 있는 상품 개선 시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상품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의 가입계좌수가 최근 5년간 1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부터 2019까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현황을 보면, 2016년 30만9,000좌에 잔액 9,750억원, 2017년 28만8,000좌에 잔액 9,327억원, 2018년 26만9,000좌에 9,259억원으로 지속 가입좌수와 잔액이 줄어 들었다.

반면 2019년부터는 26만9,000좌에 1조 원, 2020년 26만좌에 잔액 1조1,000억 원으로 잔액이 소폭 증가했고, 올해 현재 계좌가 6,000좌가 줄어 들었으나 25만4,000좌에 1조1,000억원 수준의 잔액을 유지하고 있다.

가입좌수가 2016년 대비 2021년 6월까지 5만5,000좌가 감소해 18% 줄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소폭 상승한 이유는 지난 17년 연간 납입한도를 120만원(저소득 240만원)으로 상향해 잔액이 소폭 상승한 상황이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금리는 2021년 현재 기본금리 1.82%에 장려지급률 3년 만기 0.9%, 5년 만기 1.50%를 적용한다. 그러나 가입한도가 연간 240만원 3년 만기 시 750만원, 5년만기시 1,3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에 농어민의 실질적인 재산형성을 위한 역할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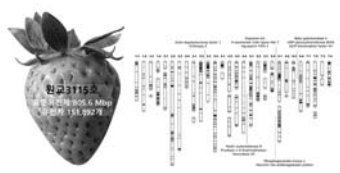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기획재정부에서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 결과에서 2013년 조소득 농어가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으로 조건부 존치를 받았고, 2016년에는 비실효적으로 낮은 연간저축한도로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돼 전면적인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으며, 2019년에는 목적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돼 폐지를 권고 받았다.

한편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상품으로, 1976년 농어촌지역의 중소농어민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도입돼 1986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률적 근거를 확립했다.

이원택 의원은 "저소득 농어가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성 있는 상품 개선을 통해 저소득 농어가의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으로 탈바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딸기 표준 유전체 완전 해독

농진청, 순계 활용 고품질 유전자 해독은 세계 최초
단단함 관련 유전자도 찾아… 품종 개발기간 단축 기대



우리나라 채소 생산액 1위 품목은 딸기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딸기 육종 기간을 앞당기고 경쟁력 있는 품종 육성을 위해 딸기 순계(동형접합성을 지닌 식물체)를 활용한 표준 유전체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플랜트 사이언스(Frontiers in Plant Science)'에 실려 학술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 등에서 딸기 유전체 해독이 이뤄졌지만, 순계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염색체가 완벽히 갖춰진 고품질 표준 유전체를 해독한 것은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유전적으로 고정된 재료의 정확한 표준 유전체 구축으로 육종 효율을 높인다는 점, 나아가 육종의 자료(데이터) 주권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딸기는 쌍을 이루는 염색체가 서로 다른 염기서열을 지니는 '이형접합성' 특징으로 종자가 아닌 줄기를 심어(포복경) 번식함으로써 순계 육성이 어렵다고 여겨졌다. 여기에 8배체(4쌍 염색체) 유전체(2n=8x= 56)를 지니고 있어 2배체(1쌍 염색체)인 고추, 배추 등보다 유전체 분석이 어려웠다.

농진청은 지난 2004년부터 10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 8개 품종으로 100여 개의 딸기 순계를 육성했다. 그리고 이 딸기 계통 중 열매가 단단한 '원교3115호'를 선발했다. 연구진이 원교3115호의 표준 유전체를 해독한 결과, 기존에 알려진 것과 같이 약 805Mbp(메가베이스페어) 크기의 유전체에 15만 개 유전자가 분포했다.

특히 유전체 분석 결과, 열매의 단단함을 조절하는 데 특정 유전자(expansin, pectin acetylesterase 등)가 관여함을 확인했다.

이번에 해독한 표준 유전체 자료를 활용하면 전통 육종 방법에서 정밀 육종인 디지털 육종으로의 전환을 통해 딸기의 품종 육성 기간을 현재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열매의 단단함 조절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면 수출용 주요 품종인 '매향'의 대체 품종 육성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미국 국립생물정보공학센터(NCBI)에 등록해 전 세계 연구자들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한-베트남-인도 해외통상거점 성과 공유

도 해외통상거점센터 화상회의
하노이 · 뉴델리 센터 2곳과
온라인 활용 화상 업무보고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15일 이사장인 신원식 신임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전북도 및 경진원 관계자의 참석 하에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와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은 지난 15일 이사장인 신원식 신임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전북도 및 경진원 관계자의 참석 하에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와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 경진원에서 새롭게 구축한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을 활용함으로써 한국·베트남·인도 3국의 관계자가 각지에서 실시간으로 원활한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해외통상거점센터(이하 거점센터)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전북의 수출전략을 점검하고자 특별히 진행된 이번 회의는 베트남 하노이·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거점센터 2개소 센터장의 성과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북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수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2021년 상반기 성과에 모두 주목했다.

지난 상반기 거점센터는 6회의 현지 박람회 및 상담회를 운영하며 도내 67개 기업의 참여를 지원한 바 있다. 그 밖에도 도내기업의 애로 해소를 상시 지원할 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채널을 넘나드는 현지 홍보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현지 마케팅은 도내 우수제품과 기업을 해외로 알리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하는 중이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뉴델리 센터의 '글로벌파트너 지원사업'에 참여해 전년 대비 3배 이상의 수출성과를 달성한 ㈜세호(익산)의 사례가 소개됐다.

글로벌파트너 지원사업은 카탈로그 등 홍보자료의 현지어 번역과 서류작성을 비롯한 각종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거점센터의 대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난 상반기 현지 바이어 2천 개社 발굴에 성공했으며, 도내 40여 기업과 매칭을 주선할 수 있었다.

경진원 신원식 이사장은 "한류의 전 세계적 유행과 국내 수출성적이 연일 고공행진하는 지금은 우리 경제가 한층 성장할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해외통상거점센터가 ㈜세호와 같은 도내 우수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발히 지원하며 전북 수출성과의 한 축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9년 5월·20년 4월 개소된 베트남 하노이·인도 뉴델리 해외센터는 ▲현지시장조사 ▲샘플발송지원 ▲상설전시지원 ▲현지박람회·상담회지원 등 다방면으로 전북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중이다.

또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대한 세계적 수요증대에 힘입어 내년까지 해외통상거점센터 1개소를 증설해 新수출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 오늘부터 3주간 말레이시아에 노하우 전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8일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3주간 말레이시아 근로자적립기금(EPF)의 중간관리자 대상으로 'NPS Global Fellowship 2021'을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NPS Global Fellowship'은 공단이 올해 마련한 맞춤형·양방향 소통 방식의 해외 제도연수 프로그램으로 이번 연수는 말레이시아 공적연금 수행 기관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해 심화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된다.

말레이시아 근로자적립기금은 1951년에 설립된 재무부 산하 공적 연금 기관으로 근로자 퇴직연금을 관리하며,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이다.

공단은 연수생들의 니즈를 반영해 가입 확대, 연금관리 등 6대 연수 분야를 직접 선정했으며 진행방식도 기존의 강의 수강 및 질의응답 형식을 벗어나 더블 멘토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32명의 공단 현업 담당자로 구성된 멘토와 국내 대학 교수진으로 이루어진 멘토가 연수생들과 함께 각 분야에 대해 실시간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연수생들은 공단 직원 28명이 강사로 참여한 제도강의 동영상을 학습하며, 최종적으로 교수 멘토의 작성 지도를 통해 자국 연금제도 현안 개선에 활용할 프로젝트 보고서를 산출하게 된다. /김윤상 기자

농식품부FTA기금 '최우수'

전북 예담채, 2년 연속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전북 예담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과수 생산·유통 지원사업(FTA기금 사업) 연차평가에서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등급'에 선정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FTA기금사업 연차평가는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전국 18개 시행주체를 대상으로 국산과수 경쟁력 확보를 위한 FTA대책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되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해 사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차평가는 각 사업시행주체에서 올 4월에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전북도의 자율평가 실시 후 농식품부에서 총괄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평가는 과수산업발전계획의 계획달성도 및 전년대비 증가율 등의 실적 계량평가와 사업시행주체의 역할과 성과를 평가하는 비계량평가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

전북도 예담채는 조합공동사업법인 9, 지역농협 20, 영농법인 5 등 총 34개의 참여조직으로 이루어진 전북농협 연합체이며, 전북 과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공동목표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각 참여주체 노력의 결과 올해 평가에서 취급액 505억원, 조직화취급액 299억원, 인증과실취급액 90억원, 수출액 30억원을 달성해 계량평가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이상기후로 냉해와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사과 농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 '우박맞은 사과'를 네이밍한 상품을 준비해 하나로마트와 홈플러스 판매를 통해 농가 수취가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극복을 위해 전북도와 함께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대형유통매장에 4주간 진행되는 릴레이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등 판매량 확대에도 힘써 비계량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예담채가 올해에도 최우수등급을 달성함에 따라 FTA기금으로 지원되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비가 최대 40% 증액이 가능하게 돼, 예담채 과수산업발전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윤상 기자

건협 전북도회 "정부 안전 점검 대비 만전을"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방섭)는 최근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 점검 계획을 회원사에 안내하고 현장 안전점검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며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부터 격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에서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추락사고 예방조치 ▲끼임사고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이 계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점검 방식 개선 ▲건설현장 근로자경각심 제고 및 건설안전 정보 공유 ▲관계기관 건설안전 역량 강화 추진 등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방섭 회장은 "정부의 강도 높은 현장 점검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근로자 교육 및 위험 공종(고소작업공종, 붕괴·전도 위험 높은 가시설, 크레인 등)에 대한 안전점검 등이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농지은행사업 안내 (KF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농지규모화사업

☞ 농지규모를 더 늘리고 싶으신가요?

농지매매사업
- 지원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청년창업농,후계농,2030세대,귀농인,만64세 이하 일반농업인)
  - 일반농업인
- 지원대상농지
  -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안
- 지원조건
  - 연리1%, 연령별 상환기간 차등 적용(최장30년)
  - 지원상한(논3.3㎡당36,000원)→초과금 자부담
  ※ 생애 첫 농지 지원의 경우(논3.3㎡당 46,000원 지원)
  - 2년간 타작물 의무 재배 후 벼농사로 전환 가능
  (※타작물 재배 기간 동안 이자 감면 혜택)

농지장기임대차
- 지원대상자 : 일반농업인, 영농복귀자
- 지원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우선 임대
- 임대차기간 : 5년~10년
- 임차료 : 위탁자-경작자 협의가격

문의전화 ☎270-0522

경영회생지원사업

☞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 지원대상자
  -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4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 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으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축사등)
- 매입가격 : 감정평가 금액
- 연간임대료 : 농지매입 가격의 1%이내
- 임대기간 : 7년(평가를 거쳐1회(3년) 연장가능)
- 환매신청
  - 환매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공사에 매도한 농지 등을 전체 또는 부분환매
- 환매가격
  - 전체환매 : "환매시점의 필지(시설)별로 감정평가 금액"과 "농지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정책이자율(연3%)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
  - 부분환매 : 매도 당시를 기준으로 매도가격의 100분의50이상에 해당하는 면적

문의전화 ☎270-0520

농지연금사업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합니다!!
- 신청대상
  - 연 령 : 농지를 소유한 만65세 이상인 자
  - 영농경력 : 5년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 2018.01.01.이후 경매,공매,증여 토지 보유기간2년경과 및 직선거리30km이내
  - 2020.01.01.이후 취득농지 2년이상 보유 직선거리 30Km
- 지원조건 : 연금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결정
- 연금수령방식 : 종신형(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기간형(5년,10년,15년,경영이양형)
- 월지급금 상한 : 월300백만원
- 농지연금의 장점
  ① 정부시행으로 안정적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②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이외의 추가 소득도 가능
  ③ 기초연금 수급자도 가입가능
  ④ 연금가입시 가입기간동안 재산세 면제
  ⑤ 배우자 승계 가능
  → 배우자 나이 만60세이상자 선택 가능

문의전화 ☎270-0525